



STATE OF NEW YORK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GOVERNOR

즉시 배포용: 2014년 7월14일

CUOMO 주지사, 신규 담배 타격대가 첫 6개월 동안 밀수품 및 현금으로 근 170만 달러를 압수했음을 발표

타격대가 담배 250 만 개비 및 24,000 장의 가짜 담배 납세증지를 압수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불법 담배 밀수 및 판매를 겨냥한 신규 담배 타격대가 첫 6개월 동안 270만 개비의 담배 및 여송연을 포함하여 현금 및 밀수품으로 근 170만 달러를 압수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담배 밀수꾼들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 우리 행정부는 법을 어기고 납세자를 등치는 사람들을 용인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1월 이래 36건의 별도 개입으로 우리 담배 타격대는 밀수품을 보관, 밀거래 또는 판매하는 사람들을 적극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 빠른 성공은 뉴욕주가 이 불법 활동을 용납하지 않으며 그것을 조장하는 사람은 정의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밀거래 희망자들에게 상기시켜줍니다.”

뉴욕주 세무재정부 범죄수사과 소속인 담배 타격대의 담배 관련 압수는 다음을 포함하여 밀수품 및 현금으로 근 168만 달러를 거두었습니다:

- 12,236보루의 비과세 담배 (보루당 200 = 2,447,200 개비의 담배)
- 254,873 개비의 여송연
- 2,061 파운드의 가루담배
- 24,773장의 가짜 담배 납세증지

압수품의 사진 및 설명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1년전에 주지사는 납세필증이 없거나 불법 필증의 압수 담배 한 보루 당 범칙금을 \$150에서 증가된 최고 \$600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세무부에 부여하는 법안에 서명하였습니다. 현재 뉴욕주에서

Korean

20개비 담배 1갑의 세금은 \$4.35이며, 뉴욕시에서는 \$4.35에 추가 세금 \$1.50가 붙습니다.

협조 노력

담배 타격대의 성공은 부분적으로 세무부와 12개 연방 및 지역 법집행 기관들 사이의 높은 수준의 협조 결과입니다.

“이 모든 기관들은 우리들 속에서 불법 담배를 판매하는 사람들이 정부 세입에 위협임을 인식합니다. 이들은 범죄자들의 호주머니를 채우는 경제 사범입니다”라고 세무재정부장 Thomas H. Mattox가 말했습니다.

담배 타격대 구성원들은 자료를 통합함으로써 범죄 관련 첩보 데이터베이스를 개선하였으며 주요 담배 밀거래 조직을 와해시키기 위해 협력하면서 중요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담배 타격대가 수행한 최대의 작전 중 하나에서 세무부는 Brooklyn에서 밀수 담배 [3,236 보루](#) 와 함께 3,795장의 가짜 담배 납세증지와 현금 \$130,000 이상을 압수하였습니다. 다른 소탕 작전에서 요원들은 Queens 주민 1명을 체포하여 비과세 주외 증지 담배 [942 보루](#) 를 운송한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담배 타격대는 그들의 일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최근에 Robert Michaelis를 팀장으로 초빙하였습니다. Michaelis는 연방 마약단속국에서 25년간 근무하였습니다. 그는 범죄수사과 수사 담당 과장 대행으로 승진한 담배타격대장 Michael W. Spinosa의 후임입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WE WORK FOR THE PEOPLE
PERFORMANCE * INTEGRITY * PRIDE